KIDA 週刊國防論壇
정책이슈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노훈 편집인 김광식 www.kida.re.kr
제1694호(17-43) 2017년 11월 6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안보·국방 영역을 중심으로

이상국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최근 중국공산당은 제19차 대회를 개최하고 중국이 중화민족의 부흥,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목전에 둔 새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시진핑 사상'(習近平思想)을 지도사상으로 한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공식화했다. 중국공산당은 2050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 국방 영역에서 '총체국가안전관'에 기초한 새로운 기본 방략(方略), 강군 건설과 중국 주도의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 영역에서는 중국의 국가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개혁, 작전역량 건설, 무기장비 발전, 작전능력 제고, 군사태세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강국화 구상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만큼,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모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중 주목되는 점은 이른바 '시진핑 사상(習近平思想)'이 중국공산당의 당장(黨章)에 새롭게 추가되고, 중공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 등에 시진핑 측근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가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는 동시에 중국 혁명의 지도자인 마오쩌둥(毛澤東)과 대등한 수준의 권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중국이 시진핑 사

KIDA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02490) 서울시 청량리우체국 사서함 250호 Tel: (02) 967-4911 Fax: (02) 961-1171
구독문의 KIDA Press Tel: (02) 961-1888, 1229 e-mail: kpdp@kida.re.kr

상에 근거해 국가발전전략과 정치·경제·사회·안보·국방·대외 정책의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주목된다.[1] 중국의 급속한 국력 성장과 국제적인 존재감의 강화를 고려할 때,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가전략과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 시대 시진핑 사상에 의거한 현대화 강국 건설

앞서 언급한 시진핑 사상의 공식 명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이다.[2] 이 명칭이 시사하는 것처럼, 중공당은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새 시대(新時代)에 진입했고, 이에 부응해 시진핑 총서기가 그동안 제시한 다양한 사상, 이론, 지침을 향후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중공당의 '지도사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당대회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직면한 새 시대는 **중화민족의 부흥, 중진국 수준 사회의 전면적 실현(샤오캉 사회의 전면 실현, '全面小康社會全成')**,[3]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목전에 둔 시대를 뜻한다. 그리고 새 시대는 국가와 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되는 주요 사회 모순이 변화한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시대의 주요 사회 모순은,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를 넘어선 '아름다운 생활' 요구의 지속적인 증대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4] 따라서 향후 중공당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요구, 곧 민주·법치·공평·정의·안전·환경 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5]

한편 시진핑 사상은 크게 중공당의 총임무, 임무실현 단계, 임무실현 원칙, 임무실현 수단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우선 중공당은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총임무로 규정하고, 21세기 중반까지 두 단계에 걸쳐 완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샤오캉 사회 전면 실현'을 전제로 2020~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2035~2050년 사이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이 제반 영역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공당은 국가 건설과 발전, 각종 개혁 추진 과정에서 '5위 일체의 총배치'(五位一體總布局)와 '4개 전면'(四個全面)의 전략적 배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5위 일체의 총배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영역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4개 전면은 샤오캉(중진국 수준의) 사회 전면 실현(全面建成小康社會), 개혁 전면 심화(全面深化改革), '의법치국' 전면 추진(全面推進依法治國), 당(黨)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全面從嚴治黨)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발전,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새 시대 강군 건설,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등도 시진핑 사상에 포함된다.

'시진핑 사상'의 안보·국방 영역의 기본 방략

중공당은 시진핑 사상에 근거해 안보, 국방 영역에서 몇 가지 '기본 방략'(方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스템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안보와 국방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6] 구체적으로 19차 당대회 보고는 **안보, 국방 영역에서 '총체국가안전관'(總體國家安全觀)의 견지를 요구하고 있다.** 총체국가안전관은 "인민 안보를 종지(宗旨)로, 정치 안보를 근본으로, 외부와 내부 안보, 국토 안보와 국민 안보,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의 통합 관리, 자국 안보와 공동 안보의 통합 실현"을 뜻한다. 그리고 이 국가안보관에 기초해 국가안보(安全)제도체계 개선, 국가안보능력 건설,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둘째, 시진핑 사상의 국방 영역의 기본 방략에는 중국군의 임무, 강군 목표와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선 시진핑 사상은 중국군을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 실현 차원에서 **중공당은 신시대 강군 목표, '중공당의 영도가 관철되고(聽黨指揮), 실전 수행과 전쟁 승리가 가능하며(能打勝仗), 품격이 우수한(作風優良) 군대 건설'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강군 건설의 동력으로는 정치 건군(政治建軍), 개혁 강군(改革强軍), 과학기술 흥군(科技興軍), 의법 치군(依法治軍)의 견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강군 건설을 위해 실전(實戰), 혁신(創新) 추동, 시스템(體系) 구축, 집약·고효율, 민군(民軍) 융합 5개 영역에서 '더욱 집중'(更加注重)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전은 임전태세 강화와 작전능력 제고, 혁신 추동은 군사이론·군사기술·군사조직·군사관리 혁신을 뜻한다. 시스템 구축은 군 개혁 조치 간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해, '리더십의 고위층 설계(頂層設計)와 각 개혁 층위 간의 연결', '장기적 설계와 과도적인 설계' 등을 정확히 처리해, 개혁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7]

셋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 발전, 상호 호혜적 개방전략, 정확한 의리관(正確義利觀),[8]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新안보관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완전한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안보, 국방 영역의 방략에 포함되며, 완전한 통일은 대만과의 통일 실현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강군 건설 구상

이러한 안보와 국방 방략에 따라 중공당은 강군 건설의 목표와 실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공당은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우선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 전략능력의 큰 향상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중국군은 국가발전목표에 대응해 2035년까지 국방 및 군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9] 여기서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에서의 중대한 진전은 정보화 위주의 기계화와 정보화 융합 발전으

로, 무기장비의 지능화, 정보화, 자동화 능력 제고를 통한 戰場감지능력, 정밀타격능력, 합동작전능력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능력 제고는 이번 당대회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한 용어로, 전략억지, 강대국 간 군사경쟁, 전쟁(억지) 문제에서 로켓군 등의 능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능력 제고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언급은 미군의 사드(THAAD)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인식(중국의 국가전략안보 손상, 역내 전략균형 파괴 초래)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군은 효과적인 전략태세 형성(유리한 전략 환경 형성), 위기관리, 전쟁 억지 및 전쟁 수행 능력 보유를 중국군의 기본 임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 영역에서는 우선 5개 전구(동부, 남부, 북부, 서부, 중부 전구) 합동작전 지휘기구의 효율성 제고와 철저한 군사투쟁 준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군사투쟁 준비의 통합 추진, 신형 작전역량(해군, 로켓군, 사이버 및 항공우주 군사역량)과 지원 역량의 발전, 실전화 군사훈련 전개, 군사역량의 운용 강화, 군사 영역의 지능화 발전 가속화, '네트워크·정보 체계에 기초한 합동작전능력'과 전역작전능력(全域作戰能力) 제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전역작전능력은 부대가 주둔 지역 또는 소속 전구(해역, 근해 또는 원해)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전구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한편 군사역량의 운용 강화는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해 주목된다.

현대적 군지휘체계에 근접한 중국군의 신 지도부

앞서 언급한 중국군의 강군전략을 추진할 새로운 지휘부가 제19차 당대회 직후 구성됐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된 제19기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는 기존에 비해 현대적 군 지휘체계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기존 18기 중앙군위와 대비해 볼 때 뚜렷하다. 18기 중앙군위는 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8명(국방부 부장, 중앙군위 연합참모부/정치공작부/후근보장부/장비발전부 4개 부장과 해군/공군/로켓군 사령원) 등 군내 주요 세력의 대표가 포함되면서 총 11명에 달했다. 반면, 19기 중앙군위 구성 인원은 4명을 줄여 7명으로 크게 간소화하면서, 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19기 중앙군위는 작전수행, 무기장비 개발, 중공당의 군 통제와 감찰과 같은 군 지휘부 본연

〈표 1〉 중공당 제19기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과 특징

직 위		성명	군종	출생연도	주요 경력
주석		시진핑	-	1953	-
부주석		쉬치량(許其亮)	공군	1950	공군사령원, 중앙군위 부주석(유임)
부주석		장오유샤(張又俠)	육군	1950	중앙군위 장비발전부 부장
위원	전문직	웨이펑허(魏鳳和)	로켓군	1954	로켓군 사령원
	연합참모부 부장	리쭤청(李作成)	육군	1953	육군 사령원
	정치공작부 부장	먀오화(苗華)	해군	1955	해군 정치위원
	기율위원회 서기	장성민(張升民)	육군	1958	중앙군위 훈련관리부 / 후군보장부 정치위원

의 임무에 초점을 둔 인적 구성을 취했다. 예를 들면, 전쟁과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연합참모부 부장 및 로켓군 사령원 출신의 (전문직) 위원, 무기장비 개발 차원에서 무기장비부 부장 출신의 부주석, 그리고 군내 중공당 건설을 위해서 정치공작부 부장, 군 통제 차원에서 기율위원회 서기를 각각 중앙군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국군 지휘부는 세계적인 합동작전 추세의 강화와 각 군종 간 비율을 고려해 육군 3명, 공군 1명, 로켓군 1명, 해군 1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이번 군 지휘부 구성에서 육군은 18기 중군군위에 비해 3명이 감소했다.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글로벌 공동체 구축 선언

중공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국제정치 환경에 대한 해석에 기초해 중국 주도의 글로벌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우선 중공당은 현재 세계 각국이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의 국제안보환경하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현 시대의 주제이고, 세계의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양화 추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질서의 변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국가 간 상호의존 심화, 국제역량구조의 균형 강화, 평화 발전이 불가역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현저하고, 세계 경제성장 동력 부족, 빈부격차 심화, 핫 포인트(hot point, 전쟁이나 무장충돌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의 지속적 출현,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심각한 질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위협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 중국은 **"지속적인 평화, 보편 안보(普遍安保), 공동 번영, 개방 포용, 청결(清潔) 미려(美麗)"의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보편 안보는 각국이 절대 안보를 추구하지 않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수립함으로써 실현되는 안보를 가리킨다.[10]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평등 협상, 냉전사고와 강권정치 포기, 대화 추구와 非대결,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 추구,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주공제'(同舟共濟,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협력),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개방·포용·호혜·균형·쌍생의 경제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명의 다양성 존중(문명 공존으로 문명 간 괴리와 충돌, 특정 문명의 우월주의 극복 등), 환경 우호,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공동 대응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원칙하에 중국은 향후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이지만, 자국의 '핵심이익'의 침해를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평화공존 5원칙 견지,[11] '존중, 공평/정의, 협력/쌍생'의 신형 국제관계 건설 추진, 내정 불간섭,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의 견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적극적 추구, 강대국 간 협력, 주변국가와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국가이익을 희생하면서 발전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정당한 권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이며, 어떤 국가도 중국이 국가이익의 손해를 감내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다.

중공당 제19차 대회의 안보적 함의

앞의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무엇보다도 중국은 향후 강국화 노력과 국제질서 변화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 부흥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추구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된다. 결국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와 '강국화'를 통해 글로벌 패권(또는 리더십) 장악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강국화 구상은 향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의 세계 일류 국가, 세계 일류 군대 건설 개념이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기존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실 시진핑의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강권정치 반대, 문화 다양성 강조는 이미 미·중 간의 경쟁 격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미·중 간 경쟁에서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우선주의(경제이익 보호-자원성 권력 강화) 대외정책에서 맞서서, 국제제도 내 발언권 확대(제도적 권력 강화)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국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네트워크 권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국익 실현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이 급격한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아닌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강국화를 추구함에 따라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동이나 미·중 간의 극단적인 대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중국이 '존중, 공평/정의, 협력/쌍생'의 '신형국제관계' 구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2050년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강국 건설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이 핵심이익에 대한 비타협적 입장을 재천명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시 말해, 핵심이익 손상 불수용 천명 등으로 영토분쟁, 국가전략안보 이슈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적고, 미·중 간 군사 경쟁을 염두에 둔 '전략능력 제고' 공식화는 미국의 역내 동맹 강화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이번 당대회에서 '군사역량의 적극 운용'을 공식 천명한 만큼 향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군의 존재감이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유리한 전략 환경 조성, 핵심이익 이슈, 미·중 간 전략경쟁 이슈, 해외이익 수호와 관련해 중국군의 군사력 현시와 군사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맺음말: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앞서 논의한 안보상황을 놓고 볼 때 한국은 아래와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제구조, 강대국 간 전략경쟁 구도의 변화 추이와 관련 안보 이슈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국력과 안보 위협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련 문제에서 신중한 행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등 역내 주요국과 전략적 신뢰를 유지, 강화하는 데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경직된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 결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31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한·중 정부 간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의 존재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과 2014년 중·일 교섭의 교훈을 고려해 볼 때,[12] 한·중 관계의 회복(또는 새로운 한·중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능동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국가전략 제정, 국가안보능력 건설, 국방개혁 등 각종 개혁의 추진 방법은 몇 가지 참고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중국의 주요 조치들은 현대과학의 중요 성과물인 복잡 시스템 이론(complex systems theory)에 기반하고 있다.[13] 한국도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안보상황에 부합하는 국가안보관 수립, 국방개혁 및 군사력 건설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개발과 적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군 융합'과 '부국(富國)과 강군(强軍) 건설 통합'이라는 중국의 국방정책은 민간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민간 경제의 발전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4차 산업 시대 한국의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이하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아래 시진핑 총서기의 당대회 보고 자료 인용. "習近平作十九大報告全文實錄." http://news.163.com/17/1018/15/D11S5V3Q0001899O.html(검색일: 2017. 10.18); "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關於十八屆中央委員會報告的決議(2017年10月24日 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通過)." http://www.ccdi.gov.cn/yw/201710/t20171024_110146.html(검색일: 2017. 10.27)

2)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寫入黨章." http://news.sina.com.cn/china/xlxw/2017-10-24/doc-ifymzqpq3746386.shtml.(검색일: 2017. 10. 24)

3) 샤오캉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 제반 영역에서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 사회를 가리킨다.

4) 제18차 당대회까지 중공당은 주요 사회 모순을 '인민의 물질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증대와 낙후한 사회생산 간의 모순'으로 규정해 왔다. "如何認識我國新時代社會的主要矛盾." http://opinion.people.com.cn/n1/2017/1019/c1003-29595844.html(검색일: 2017. 10. 20.)

5) 중공당은 신시대 진입에도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고,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공당 일당 통치를 정당화하고, 국제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 시스템 안보는 중국 안보 전문가들이 복잡 시스템(complex systems) 이론을 국제정치에 적용해 발전시키고 있는 새로운 안보 개념이다.

7) 군 건설과 운용 시 군 지휘부의 전략기획을 강조하는 '고위층 설계' 개념은 시스템 공학에서 출발한 것으로, 중국군이 국방과 군사 문제를 복잡 시스템 이론에 기초해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제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해 온 것으로, 국가 관계에서 국가의 이익뿐 아니라 의리(義理)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뜻이다.

9) 중국군의 현대화는 군사이론, 군사조직, 군사인원, 무기장비 영역의 현대화를 의미한다.

10) 習近平. (2017). "共同構建人類命運共同體(在聯合國日內瓦總部的演講)." 『人民日報』(1月20日). 2版.

11)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 불가침,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원칙'을 가리킴. 1950년대 중반 중-인도 회의에서 제기

12) 2014년 중반 일본의 釣魚島 국유화 조치로 중일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가운데 같은 해 12월 중일관계 개선에 관한 정부 간 합의와 중일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이 결과 양국관계의 극단화(외교관계 단절 등)는 피했으나, 일본이 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을 부인하면서 양국 간 긴장 국면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어도에 대한 중국의 상시적 초계활동 등 (준)군사 및 압박 정책이 심화했으며, 중일 간 행상 안보연락메커니즘 구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사 및 대만 문제와 연계돼 중일 간 국방 교류가 차질을 빚어왔다. 아울러 양국 간 외교, 경제 관계는 조어도 국유화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3) 복잡 시스템은 수많은 하위 구성요소들이 비선형(nonlinear)적으로 상호작용해, 단순히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분석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질과 기능을 지닌 시스템을 뜻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이상국. (2016). "중국의 인공지능 기반 '평행군사체계' 구축 움직임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621호.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92호(10월 23일):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강국 주장 본격화와 함의
– 이중구, 손효종 –

제1693호(10월 30일): 9.21 김정은 성명 분석을 통한 북한의 대미 무력공격 가능성 전망
– 박대광 –

제1694호(11월 6일): 중공당 제19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안보, 국방 영역을 중심으로
– 이상국 –

차호

제1695호(11월 13일): 레이저 대공무기 발전추세 및 획득전략에 관한 소고
– 김종국, 변유진 –

저자 소개

이상국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korpia@kida.re.kr